



김금수의 길찾기

#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를 정립하자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를 이 지점 까지 몰고 왔으며, 왜 그랬었는가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 하다. 인류가 만성할 수 있는 마력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과거나 현재를 면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세번째 천년기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실패의 대가는, 즉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암흑뿐이다.

— 에릭 흄스볼,『국민의 시대 : 20세기 역사』—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의 변화들이 위낙 급격한 편이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듯 하다. 더구나 자본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자본의 합리화 전략이 전에 볼 수 없이 치밀하고도 강도 높게 추진되는 현실이다. 이런 변화들은 노동운동 발전에서는 분명 도전이다.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거대 도전으로 바짝 다가서 있다.

### 좌절과 희망의 교차 지점

한국 노동운동도 이런 큰 도전에 부닥쳐 있기는 마찬가지다. 어찌면 도전의 이빨이 어느 곳의 경우보다 훨씬 광포하고도 교활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자체는 어떤가? 주관에 치우친 관단인지는 몰라도, 좌절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는 형국이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여러 측면의 정세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정세 전망에 대한 조직적인 공유의 폭은 아직 매우 협소한 편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딜레마에서 오는 심한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략목표와 전술방침 모색도 뒤섞인 채 이루어지는 듯 하다. 무엇이 장기목표이고 어떤 것이 당면과제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흔히 목격된다. 그런가 하면, 조직의 지도방침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혼돈을 빚기도 하며, 지도부와 현장의 괴리가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눈앞에 떠오른 도전과 과제가 과하게 인식되고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광대할 때, 좌절과 좌배의식은 걸림을 수 없이 높게 고개를 처들

# COSATU 6th NATIONAL CONGRESS

16-19 September 1997

## BOOK 3

### • Report from the September Commission



COSATU 제6차 총회에 제출된 셀ектив위원회보고서.  
21세기를 향한 COSATU의 노선과 이념, 발전전략이 담겨있다

기 마련이다. 기회주의, 타협주의 따위가 세를 불리게 되고, 모험주의와 극좌적 겹합이 한껏 목소리를 키우게 된다. 또 조직체계를 흔드는 분파주의가 내부 혼란을 부추길 소지도 높아진다. 이런 현상들은 사회운동이 위기국면으로

빠져들 경우 흔히 나타나는 징후들이 기도 하다.

그래서 도전의 내용과 본질, 성격과 파급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고 노동운동의 대응노선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어차피 노동운동은 난관과 역경의 고비들을 극복하는 가운데 발전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발전은 자기논리의 관철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침체와 고양, 패배와 승리, 정체와 비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어 왔고, 크고 작은 술한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전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도전에 대한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자기발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거대 도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노선 정립과 운동기조의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응노선과 기조는 조직적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 모색되어야 하고 의결기구에서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기구 설치를 통한 조사, 토의, 면담 등이 필요하고 현장토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삼아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영국노동조합회의(TUC)의 「노동조합의 미래」(The Future of the Trade Unions), 오스트레일리아노동조합회의

(ACTU)의 「노조 2001 - 노조 활동을 위한 계획」(A Blueprint for Trade Union Activism), 미국노동총연맹산별회의(AFL-CIO)의 「21세기를 맞는 노동조합의 생존전략」(Union Survival Strategies for Twenty-first Century),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의 「노동조합의 미래에 관한 셉템버위원회 보고서」(Report from the September Commission) 등이 각국이 준비하는 21세기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운동의 전략 목표

현재 한국노동운동이 표방하고 있는 운동이념과 기조는 어떤 것인가부터 살펴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95년 2월의 대의원대회에서 「2000년대를 대비한 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운동노선으로 설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①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 전개, ② 혁명적 계급투쟁 배격과 편협한 경제주의 극복, ③ 임금 노동조선 개선과 노동기본권 신장, ④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생활권 보호와 이해 조화, ⑤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 ⑥ 기업과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⑦ 정치활동 전

개, ⑧ 노동조직 통일과 민주적 타운등  
과의 연대 강화, ⑨ 민족통일과 세계평  
화에 기여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운동노선이나 운동기조  
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 그러  
나 강령과 규약상의 목  
적을 통해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  
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  
설, 노동자의 정치세력  
화와 민주세력과의 연  
대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 산업별 노조  
건설과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노동기본권 행취

와 경영참가 확대 및 노동현장의 비민  
주적 요소 척결, 노동조건 개선과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독점자본에 대한 규  
제강화와 정책과 제도 개혁, 국제노동  
운동 역량강화와 세계평화 실현 등이  
그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설정한 이런  
운동노선과 기조가 과연 변화된 조건  
과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서 적합  
한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이 글을 대  
한 종합적인 진단과 토의가 이루어져  
만 한다. 여기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1세기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전략

목표는 이미도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  
적 개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21세기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지배세력이나 지배클릭의 반동과 피지  
배세력이나 피지배클릭 사이의 격심한  
모순과 충돌을 특징으  
로 하게 되고, 한국자본  
주의의 종속적 독점적  
자본주의 구조의 심화  
강화와 이에 대한 민중  
적 항거를 수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에서 노동운동이 사회  
발전의 추진 주체가 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한 노선은 사회적 조합주의  
또는 사회개혁 조합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전투적  
조합주의나 변혁적 조합주의의 내용까  
지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진  
보적 조합주의로 개념화할 수도 있음  
듯 하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변혁을 위  
한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를 추구하  
고, 민주주의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조합주의의 실현  
에서 정책과 제도 개혁이 주요 과제가  
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 결정 과  
정에 대한 올바른 참가와 사회운동 세  
력과의 정치적 풍浪이 중요시된다. 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설정한

##### 운동노선과 기조가 과연

##### 변화된 조건과 새로운 도전에

##### 대응하는 데서 적합한 전략이 될 수

##### 있는가. 이 글을 대한 종합적인

##### 진단과 토의가 이루어져만 한다.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주체적인 중대 과제가 된다.

사회적 조합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의 하나가 경제민주주의이다.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국내외 독점자본과 국가 권력의 자본축적 구조 및 권력행사를 민주적으로 규제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민주주의는 국제독점자본은 물론이고 국내독점자본을 막론하고 독점자본 중심의 국가 정책과 무제한적인 축적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반독점 민주주의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경제민주주의 목표는 정치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지향한다. 또 그것은 종속적인 축적구조를 민족적이고 자립적인 축적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고 독점자본을 규제하며,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현시기에 제기되는 경제민주주의 과제는 경제구조의 민주적 개혁, 재벌해체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기업과 국민기업 확대, 고용보장,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비롯한 정책 제도 개혁,

국가정책 결정과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리 보장 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안티 테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략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이고도 유연하며, 다양한 전술이 올바르게 운용되어야만 할 것이며, 정세와 요구 그리고 역량관계에 바탕을 둔 충실한 행동 프로그램이 설정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략

노동운동의 전략 목표는 어차피 정치적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그것이 체제 또는 제도의 변혁이나 개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그런데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들은 내용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목표와 방침 그리고 단계적 실천계획도 아직 설정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먼저 노동운동의 자발전을 위해서도 노동조합운동의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정치체제의 개혁을 위해서나 한국사회 발전에서 노동자계급이 걸어진 책무 이행을 위해서

도 정치세력화는 노동운동의 춤대 과제로 떠올라 있다.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략 목표를 골바로 설정해야 할 판세다.

먼저 정치세력화의 주체 문제가 제기된다. 주체행성과 관련해서는 노동자계급을 핵심세력으로 하고, 민중세력 또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을 주축으로 하여 각계 각층의 광범한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체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세력화는 결코 노동자계급의 베타적 정당 구성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치세력화에서 추구할 정치노선의 문제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할 전략 목표와 모순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사회상황과 관련해서 본다면 변화의 목표까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세력화의 목표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한 실질적 민주화 또는 민주변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지향

할 이념은 사회민주주의일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현재의 정치체제나 구조에 비추어 의회를 통한 노동세력의 권력획득 구상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노동운동 또는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통일을 통한 권력접근 또는 권력획득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직과 정치조직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노동조직과 정치조직은 자율적 대통과 협력 그리고

동맹의 강화가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경험에서 드러난 오류와 시행착오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에서 현단계 과제는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벌이는 대중투쟁과 사회운동의 발전을 추진하는 일이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현단계 과제가 된다. 또 다른 민중운동과 진보적 정치세력 그리고 다양한 시민운동과의 정치적 동맹이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주체역량 형성과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그리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그런데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들은 내용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목표와 방침 그리고 단계적 실천계획도 아직 설정되지 않고 있다.

고 보수적 정치권력과 지배세력 및 자본 진영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마련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노동운동의 주체적 개혁 전략

노동운동의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추진력은 다름 아닌 주체 역량이다. 노동운동의 자기개혁을 통한 역량 강화 없이는 거대 도전에 짓눌려 패잔자의 위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의 주체적 개혁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성격인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엄중한 정세와 권력과 자본의 강한 공세는 노동조직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는 비자주적 요소와 비민주적 조직운영 방식을 지양하지 않고는 내부 개혁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운동의 주체적 개혁에서 최대의 과제는 조직형태의 전환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여 산업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과 주체적 조

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런 상황과 조건에 대한 대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비꾸어 말해서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가 산별노조 건설 운동을 촉진하며, 노조 조직체계의 구조적 개혁 노력은 그런 조건 변화에 대한 실천적 대응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직개혁을 추진하는 데서 현단계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조직형태 발전을 위한 조직강령과 활동방침을 수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 상급조직의 기능과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직확대와 민주적 개편을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기업단위 조직을 정비 강화하고 노동전선의 통일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쟁 전략의 올바른 설정이 주체적 개혁 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책과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한 이른바 사회개혁투쟁이 투쟁 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제도 개혁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고 정치운동이며 계급적 성격의 투쟁이다. 말하자면 제도적 요구투쟁은 자본주의 제도의 개혁을 위한 역량증대라는 '예비적 조직화'의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제도나 정책은 자본과 권력

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고, 분명 개량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다면 이 양보와 개량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양보와 개량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투쟁을 약화하고 분열시키며 체제 내로 표심하는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는 단압과 풍파 그리고 폭력적 지폐와 본질상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양보와 개량이 노동자계급의 육체적 정신적 회화를 막고, 그것이 노동자의 투쟁 성과로서 확득된 것으로서, 더 큰 단결과 투쟁을 촉진하고 체제

개혁에 다가가게 한다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의의를 갖게되는 것이다. 문제는 양보와 개량이 투쟁의 목표인가, 과정의 문제인가 하는 전략적 선택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량을 위한 개량, 전략적 목표 없이 추구되는 개량, 변혁적 전략과 합치되지 않는 개량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제도와 정책 개혁 투쟁에서는 정책참가가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정책참가를 위해서는 목표와 원칙의 물바른 설정이 중요하다. 또 가구문연의 민주화와 다양한 참가방식의 활용이 요구되고, 투쟁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여론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정치세력화와 직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체적 개혁에서 노조 민주주의의 실현이 또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조합 민주주의를 확충하는 데서는 현장활동 강화, 선거제도 개선, 집행체제의 정비, 간부총의 확대와 능력 향상, 재정문연의 개선, 일상활동의 충실햄화, 조직 규모의 확장, 조직간의 연대 강화와 상급조직의 기능 집중, 전국중앙조직의 기능 확충 등이

실현 과제가 될 것이다. 노조 민주주의 실현에서 관료주의적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기준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운동의 전략 목표가 확고할 때 미래에 대한 무관심이나 우려는 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한 지식인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위기 속에서만 전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위기를 활용하자. 진보는 행적이 아니다.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할 수 있다. 선보다 악에 대항하기 위해 더 쉽게 물진다”(베르나르 뿌쉬네의 ‘냉소주의의 거부’ 가운데). ♦

### 우리길에 잔존하고 있는

비자주적 모스와

비민주적 조직문화 방식을  
지양하지 않고는 나루 개혁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